



‘희망 2026년 나눔캠페인’ 1,287,303,000 원

따뜻한 고장, 부산진구라서 행복합니다

사상 첫 10억 원대... 전년 대비 30% 증가

2연속 부산 1위 이어 부동의 ‘3연패’ 예약

기부 나눔 확산, 저소득 이웃 수혜도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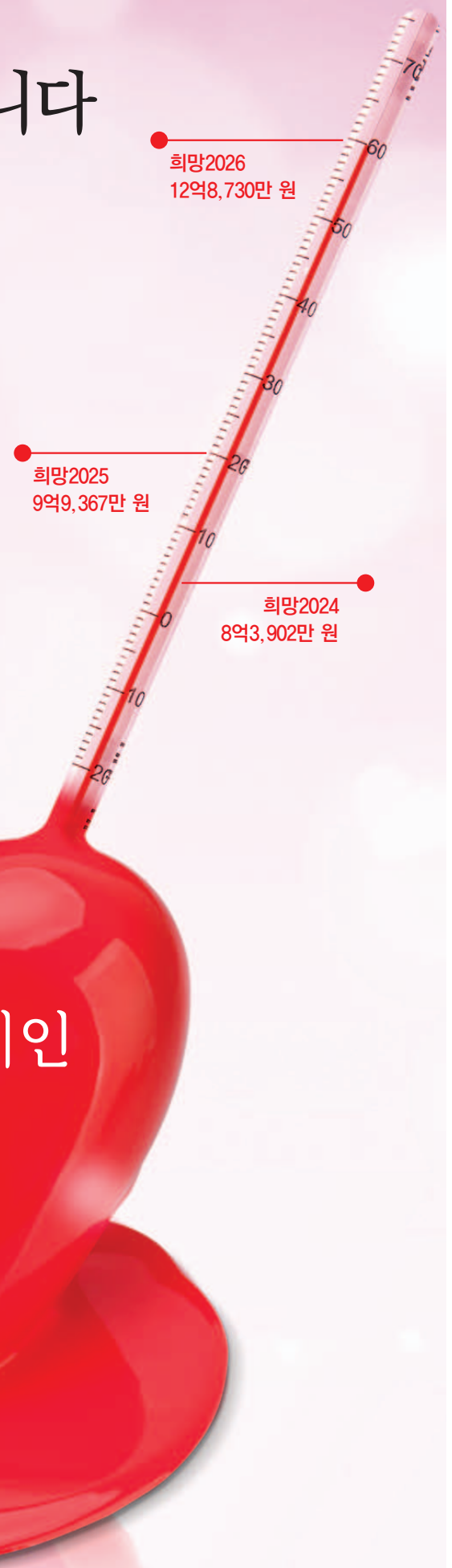
지난겨울 부산진구의 ‘희망 사랑 온도’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다. 이웃을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구민들의 나눔과 기부 정신이 갈수록 크고 깊어졌다. 충분히 부산진구민들 스스로 자랑하고 행복해할 만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펼쳐진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서 부산진구에 기탁된 총기부액은 12억8,73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초의 열 자릿수 금액일 뿐 아니라 직전 연도에 실시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당시 총모금액 9억 9,367만 원에 비해 30%나 증가한 액수다. 이미 ‘희망 2025 캠페인’과 ‘희망 2024 캠페인(모금액 8억3,902만 원)’에서 2년 연속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부금액 1위를 차지했던 부산진구는 올해도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별로는 부전1동과 가야동 전포1동이 1~3위를 차지했다. 성금·품은 복지꾸러미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

이처럼 높았던 참여 열기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부산진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달 초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법인 3곳은 (주)와이씨텍, (주)파크시티, (사)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등이다. 또 개인 수상자는 정동진해물탕해물집 안은영·김대홍 대표, 윤오토자동차정비 윤현석 대표, 개미집 서면본점 안경주 대표 등이다.

감사장은 모브인터내셔널, 수정산투자(주), (주)니티드 등 3개 법인과 삼광사 주지 용암 스님(개인), 부산평화시장번영회(단체) 등에게 전달됐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가장 뜨거운 열기 속에 나눔에 참여해준 구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계(605-4354·4355)



희망 나눔캠페인 최근 3년 온도계



희망2026나눔캠페인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